

“2학기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밀집도는 최소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학기 등교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권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및 등교·원격수업 운영 방안'을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 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등교 방안은 지역 여건이나 구성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등교 수업시 동일 시간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교 및 급식시간 등은 조정 운영하도록 했다.

부득이 등교·원격수업 병행시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시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전북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과 같은 1단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단계 격상시에는 별도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지역 감염 등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지역 단위로 등교 중시시에만 실행하도록 했으며, 이때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

교육청 및 방역당국과 협의 후 진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이외에 집중호우 등 풍수해 기상특보(경보)시에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의 결정 및 시행 후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로서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

다. 이때 심야시간 및 일과 시작 전에 긴급 결정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유선 보고 후 사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2학기 교육과정, 평가·기록방안,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8월 중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및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에 대비한 내실 있는 2학기 등교 방안을 수립·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은 10일, 집중호우와 강풍,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남원지역 피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남원 월곡초 경사로 토사 긴급보수한 현장.

전북대 평생교육원 2학기 신입생 모집

222개 반에 총 4,525명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윤정모)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교육복지학부와 생활교양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어문학부, 직업교육학부, 예술학부 등 6개 학부 222개 반에 총 4,525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전주 경원동에 위치한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88-0022), 인터넷(<http://acc.jnu.ac.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특히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대학 수업을 청강할 수 있는 명예학생 과정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1974년 이전 출생자로 수강신청 절차를 거치면 의·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예술학부 등 특수 전문 분야를 제외한 대학 전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2학기 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주 동안 이뤄진다.

한편,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1996년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호우피해 11개교... 남원 6개교 '最多'

도교육청, 남원지역 운동장 침수 등 피해 현장 방문 점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집중호우 피해 학교 현장점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0일, 집중호우와 강풍,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남원지역 피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학교는 모두 11개교 14

곳이다. 남원 6교, 전주 2교, 김제 1교, 군산 1교, 순창 1교 등이다.

가장 피해가 큰 남원의 경우 초 3교, 중 2교, 고 1교에서 운동장 침수, 교사 누수, 토사 유출, 경사면 붕괴 등의 피해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한 복구와 추가피해 예방,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일부터는 전주생명과학교를 비롯해 전주한일고, 무주부당초, 이리유치원 등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 피해 학교 복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원광대 의사소통센터, 시즌1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융합교양대학 의사소통센터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8주간 진행된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내사랑 원복 챌린지’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평가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 소양 확산을 위한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내사랑 원복 챌린지’는 학생, 교수, 직원 등이 평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또는 소개하고 싶은 책을 영상콘텐츠로 만들어 게시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은 이상복 명예교수가 소개한 괴테의 ‘파우스트’를 시작으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윤해술 문예창작학과 4년)’, 작자 미상의 ‘이춘종전(이해경 융합교양대학 교수)’, 이미술/신현주의 ‘4차 인간(박현 신문방송학과 4년)’, 루이스 브르헤스의 ‘픽션들(서덕민 융합교양대학 교수)’, 에리히 프롬의 ‘인간의 마음(이상범 철학과 교수)’, 최재훈의 ‘일곱 개의 고양이 눈(정승훈 의사소통센터 조교)’, 김영하의 ‘오래 준비해 온 대답(배문홍 융합교양대학 직원)’이 순차적으로 소개됐다.

제작 콘텐츠는 매주 대학 홈페이지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의사소통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업로드돼 매회 1,000회 이

상 조회 또는 공유됨으로써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융합교양대학 이해경 교수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시국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참여했다”며, “참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시청하는 모든 분이 코로나19 극복의 긍정적인 동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소통센터장 황보경 교수는 “9월부터 시작되는 시즌2 역시 많은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해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캠페인 성공을 위해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내가 사랑한 한 권의 책, 내사랑 원복 챌린지’ 시즌2는 오는 2학기 개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주변 확대를 위해 기존 참여자 및 등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시점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미와 의미가 있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영림 기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반대 성명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 비판

전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환경안전관리자의 지정대상에서 보건교사가 빠질 수 있도록 해 의료인으로서 보건교사의 책무를 방임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지난 7월1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 안전을 담당하는 환경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누구에게 지정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법부터 지켜달라는 지방직공무원들의 요구에 허종식 의원은 “보건교사와 양측의 균형 잡힌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보건교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쪽짜리 토론회를

열어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직공무원들을 둘러싸고 세우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거기에 ‘네모하러 왔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으로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보건교사의 이권만을 대변하겠다는 허종식 의원의 태도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개정안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며 “코로나와 수해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안전의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도외시키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겠다는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수해와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재난극복상황이 마무리 되는 대로 허종식 의원에게 토론회 파행과 엉터리 개정안 발의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